

##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 6일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공정거래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 김종석 교수(홍익대)와 조성봉 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고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규율 메커니즘이므로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은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규제와 시장규율에 위임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관련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구조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정책」과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법 집행」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제2부 토론회에서 초청토론자인 김&장의 신광식 고문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구조 문제 외에 경쟁정책적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KDI의 연태훈 박사는 현시점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본질은 소유지배의 괴리에 따른 부의 이전의 억제라고 보는데 아직 기업자체의 자율적 통제가 낮은 수준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장치를 타 법으로 이관하는 데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조직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조직학회는 지난 9월 27일 단국대학교 서관 1104호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상승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공동으로(김선구,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반기범 연구원) 수행한 출자총액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대리인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효율적인 출자마저도 규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위축, 기업조직의 왜곡초래, 모든 출자행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 및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적용제외, 예외인정조항의 확산과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일률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소유권과 의결권을 정확히 정의하고 이를 지표화 한 의결권 승수(의결권/실질소유권)를 이용하여 의결권 승수가 1.5 이하인 기업에게는 총 출자비율한도를 100%로 완화시켜주고, 1.25 이하인 기업에게는 150%로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